

대한민국 FMD · BSE 청정국 지위 획득

OIE총회서 결의안 채택 ... 가성우역 · 아프리카마역도 포함

〈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〉

〈요 약〉

-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 총회가 지난 5월 24일~5월 30일까지 프랑스에서 158개국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
 - 총회에는 WHO, FAO 등 국제기구와 함께 브라질, 독일 등 41개국 장관 및 차관 등 고위급 인사 참석
-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 차관보를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현지 대응 등을 통해 OIE 총회에서 구제역(FMD), 소해면상뇌증(BSE, 일명 광우병) 등 4개 질병 청정국 지위를 획득함
 - 4개 질병 청정국은 구제역(백신접종 청정국), 소해면상뇌증(위험무시국), 가성우역 · 아프리카마역(청정국)
- 구제역, BSE 등 청정국 지위획득은 우리나라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제고, 수출가능성 확대 등 효과가 기대됨
- 농식품부는 청정국 획득만큼이나 앞으로 청정국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, 축산농가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함

1.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 총회 결과 (청정국 지위 관련)

-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158개국 500여

명이 가운데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 총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.

- 이번 OIE 총회는 우리나라의 구제역, 소해면상뇌증(BSE, 일명 광우병) 등의 청정국 지위획득 여부 등이 결정되는



매우 중요한 회의였다고 밝혔다.

-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준원 차관보를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OIE 총회 기조연설, OIE 사무총장 면담, 주요 회원국 대표 등에게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.

※ 주요 고위급 대표 : WHO, FAO, 브라질, 독일 등 41개국 장관, 차관 참석

- 농식품부는 그간 우리나라 가축방역의 성과와 대표단이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, OIE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구제역·소해면상뇌증 등 4개 질병에 대해 청정국 지위를 인정하는 결의(안)이 채택(29일 청정국 인증서 부여) 되었다고 밝혔다.

-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은 지난 '11년 구제역 발생이후 특별방역 대책 추진 등으로 2년간 구제역 재발을 성공적으로 막았고, 그간 축산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 및 체계적인 검사·예찰 관리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과였다.

- 소해면상뇌증(BSE)는 '96년부터 우리나라가 영국산 소 및 소 유래 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최근 '08년 사료위생조치* 등을 통해 '10년 위험통제국 지위획득 이후 최고 지위등급**인 위험무시국을 획득하게 되었다.

* 반추동물(되새김질 하는 동물로서 소, 양 등)에 동물성 유래 단백질 급여금지

** BSE 지위 : 미결정위험국 → 위험통제

국 → 위험무시국

- 구제역 및 소해면상뇌증과 함께 OIE에서 청정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한 '가성우역'* 및 '아프리카마역**'까지 함께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 성과를 얻었다.

* 가성우역 :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소에 감염, 아프리카 및 일부 아시아 지역 발생

** 아프리카마역 :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말, 노새 등에 감염, 아프리카 및 중앙 아시아 등 발생

- 농식품부는 이는 OIE의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해외전염병에 대해 25년 이상 비발생 기록 관리와 이를 실증하는 검사체계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설명하였다.

- 또한, 농식품부는 OIE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구제역·AI 등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협력, 신속한 OIE 질병통보·공개, 국제 공동연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,

-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활용한 질병관리 제도*도 소개하였으며, OIE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동물위생 및 복지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.

* IT 활용한 질병관리 : 농장, 도축, 유통,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제로 관리되고 있으며, 축산관계 차량에서 GPS 장착을

통한 신속한 역학조사 지원

- OIE사무총장과의 면담 시 우리나라 인천에서 '14.10.14 ~ 10.16. 까지 개최되는 'OIE 표준실험실 및 협력연구센터 회의*'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.

* OIE 표준실험실 회의는 41개국 241개 OIE 표준실험실 및 43개 협력연구센터 전문가 약 4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매 4년마다 개최됨

2. 그간 추진 경과

- 그동안 농식품부는 4개 가축질병의 청정국 지위획득을 위해 '특별방역대책'과 함께 전담반(T/F)을 구성·운영하여 종합 보고서 마련, OIE 고위급 사전 현지설명('13.10, 축산정책국장) 등 1년 이상의 준비와 총력적으로 대응하여 왔다고 설명하였다.

- (구제역) 지난 2년간 비발생과 전 두수(소·돼지) 백신접종, 검사·예찰, 소독·점검 등 주요 방역조치를 토대로 '13.10월 가축방역협의회 심사를 거쳐 OIE에 청정국 지위신청(신청보고서 137쪽)하고, OIE 특별작업단, OIE 과학위원회 심의* 등에 대응하여 왔다.

* '13.4. 2년간 비발생 → '13.10 가축방역협의회 심의 → '13.10 OIE 신청 → '13.11 OIE 특별작업단 심의 → '14.3 OIE 과학위원회 심의 → '14.5. OIE

총회 의결

- (소해면상뇌증) '96년부터 BSE 관련 조치를 실시하였고, 7년간 예찰(검사 점수 41만점 이상 달성), 8년간 반추동물 사료조치 등 주요 조치를 기반으로 '13.9월 가축방역협의회 심사를 거쳐 OIE에 위험무시국 지위신청을 하고, OIE 특별작업단, OIE 과학위원회 심의* 등에 대처하여 왔다.

* 2010년 위험통제국 OIE 지위 획득 → '13.9 가축방역협의회 심의 → '13.9 OIE 신청 → '13.11 OIE 특별작업단 심의 → '14.3 OIE 과학위원회 심의 → '14.5 OIE 총회 의결

- (가성우역·아프리카마역) 지난 25년간 비발생, 최소 10년간 백신접종 금지, 질병보고체계 유지 기록, 검사예찰 등을 바탕으로 OIE에 각각 '13.10.25, '13.11.17일 청정국 지위를 신청하고 OIE 심의에 대응하여 왔다.

3.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농식품부는 이번에 OIE 총회에서 구제역, BSE 등 청정국 지위획득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.
- 우리나라가 구제역, BSE 등 주요 가축 전염병 청정국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의 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계기가 되었으며,
- 국내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한 청정성 및 안전성에 대



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,

- 축산농가에게는 청정화에 따른 축산물 소비촉진과 청정국 유지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대외적으로는 구제역, BSE 등 청정국이 됨에 따라 동남아 등에 축산물의 수출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한편,

- 우리나라로 축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동등한 가축위생조건(청정국 지위 등)을 요구할 수 있다.

□ 또한, 농식품부는 금번 ‘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’ 지위획득 이후 ‘구제역 백신접종하지 않는 청정국’으로의 지위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·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○ 동남아, 중국 등 주변국의 구제역 발생상황을 고려하여, 예방접종 중단에 따른 구제역 발생 위험도* 평가 및 ‘구제역 백신접종하지 않는 청정국’으로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,

* 해외발생상황, 국경검역·국내방역 여건 등 시나리오별 위험 분석

○ 우리나라가 OIE의 관련 요건을 갖추

게 되면 OIE에 ‘예방접종하지 않는 청정국’ 지위를 신청할 것이다.

□ 농식품부는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은 청정국 획득 만큼이나, 앞으로 청정국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,

○ 구제역은 ① 백신접종 철저, ②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 및 지도·점검, ③ 체계적인 예찰·조사, ④ 조기신고 및 방역체계 유지, ⑤ 지속적인 국경 검역 등을 통해 청정국을 유지할 계획이며

○ 소해면상뇌증(BSE)은 ① 해외로부터 BSE 관련 물품 관리 철저, ② 육골분 등 반추동물에 사료금지조치 유지, ③ 사료제조 및 운반 관리 철저, ④ 지속적인 BSE 예찰 유지 등을 통해 위험무시국 지위 유지하고,

○ 가성우역과 아프리카마역은 신고체계 유지 및 지속적인 검사·예찰 등을 통한 청정국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□ 마지막으로 농식품부는 중국, 동남아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축산농가에서도 철저한 예방접종과 차단방역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. ☞